

공식(共食)하는 원리가 사라져 버린 사회

이용선 / 전주일보 주필

사람 사람과 짐승은 서로 다른 데가 있다. 짐승은 미물(微物)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靈長)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만물을 통괄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은 어디서 온 것인가? 윤리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비와 자식을 구분할 줄 알고 자기가 입을 데도 괜찮은 먹이와 그럴 수 없는 것의 의리를 아는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공자도 나왔고, 예수도 탄생되었지만 짐승의 세계에서는 개의 공자, 원숭이의 석가모니가 나온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거꾸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짐승은 먹이를 잡아먹는 일은 하되 살생은 하지 않는다. 이 쪽 무리가 저 쪽 무리를 대량 살육하지도 않고, 싸우다가도 한쪽이 등을 보이면 쫓는 시늉을 하다가 그만두어 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영장(靈長) 값을 거꾸로 하느라고 그런지 욕심이 한없이 많다. 불과 인생 백년도 다 못 살고 죽어 흙이 될 처지이면서 5백년이나 살 근심을 하고, 열 명 자식 씨도 못 퍼뜨릴 것이면서 수천 명이 먹이 먹이를 얻으려고 악착을 띤다.

이것이 짐승보다 나은 영장인가? 누가 '인간 분석'을 제대로 해 본다면 인간 같이 알미운 짐승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왜 배불리 먹을 밥상 앞에 앉아서도 굶는 놈 공상을 떨어대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근본적으로는 자유 경제인지, 시장 경제인지가 나타나면서부터 욕심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 나 쓰고 남으면 그만이던 삶의 형태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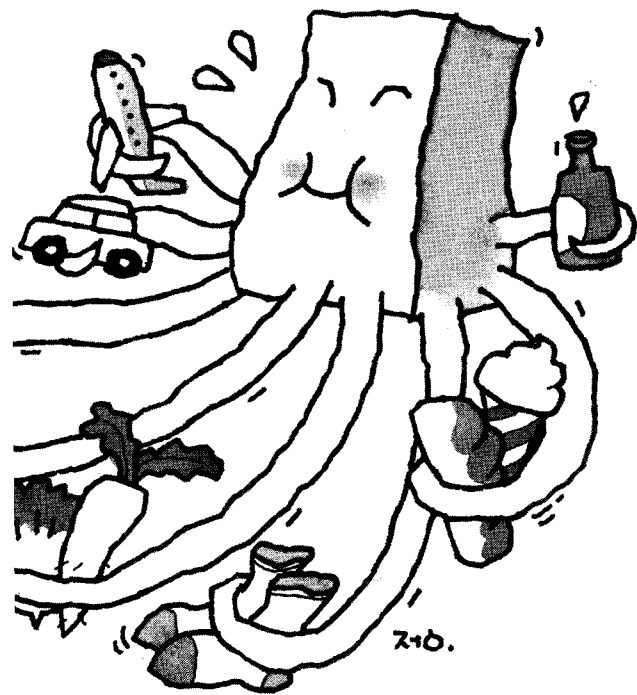


조적 모순에서 상품은 더 양산(量産)되고, 험떡거리는 욕심의 구멍은 더 크게 우리 마음 속에 뚫려져 가고 있다.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 남이 부자되니까 상대적 빈곤으로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시장 경제는 싸움하는 경제이며 돈을 추구하는 경주다. 그러나 이런 경제 행위의 적자생존 원리 속에서도 우리는 왜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강육약식(強肉弱食)의 경제 전쟁이지만 그 행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쪽이 되었건, 소비쪽이 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결국은 '함께 하는 경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살라면 최소한도의 룰은 있어야 한다. 완전히 짐승 세계처럼 '힘이 곧 왕이다'는 경제라면 대기업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비행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양말기업 같은 것은 단숨에 먹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나 선박을 만드는 힘으로 그까짓 콩나물 장수를 짝술이 하지 못하겠는가? 재벌의 폭풍 앞에 자갈한 '풀잎 경



제' 행위자들은 하루 아침에 다 눕혀지고 말 것인데도 왜 독과점을 막고,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윤리에 어긋 난다'고 비난하는가?

재벌이 힘(돈)을 앞세워 모든 것을 잠식해 버린다면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기들이 먹을 만큼 먹기는 먹되 먹을 만큼 먹었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좀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자가 잡은 먹이를 독수리나 곰뻥이까지 함께 나누어 먹고 살고 있는 이치도 바로 그것이다. 말하자면 공식(共食)하는 원리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망해 버리고 만다. 큰 것과 작은 것, 힘센 것과 힘 없는 것이 서로 먹이사슬을 이루고 사는 이치가 이 세상을 지탱시키는 원리일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도 공정거래(公正去來)라는 것이 기업 윤리나 그 행위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정신 바탕을 이루고, 이것을 옛 사람들도 허물거나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에피소드도 그래서 나왔다. 조선시대 영조(英祖) 때 김수팽(金壽彭)이란 청백리가 있었다. 안동 김씨 명문이라서 아우도 함께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데, 살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살림살이에 보태느라고 물감 들이는 부업을 집에서 하고 있었다.

염료장사가 그 때는 매우 번성했다. 잇꽃(국화과의 이년초)에서 붉은 물감을 빼는데, 사치한 풍조가 돌아 염료는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잇꽃도 중국에 다녀오는 사신 행차에 묻어 밀수입되고 있었다.

중국 잇꽃이 훨씬 물감이 진하고 물이 곱게 들어 국산 잇꽃보다 두배나 비쌌다. 김수팽의 동생은 그 밀수 잇꽃을 구해 많은 이익을 보았다.

그러자 아우가 밀수 잇꽃으로 염료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형 김수팽은 아우 집에 가서 마당에 죽 늘어선 그 잇꽃 향아리들을 땅에 쏟아 버리면서 꾸짖었다.

“우리 형제가 나라의 녹을 받고 있거늘, 물감 장사까지 해 버리면 우리보다 못한 백성은 무엇을 해먹고 사느냐?”

오늘의 공무원이 해먹고 살 수 있는 부업의 한계가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생업(生業)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가 부업하는 것을 막았고, 관리와 백성 사이에 돈거래 하는 행위도 막았다.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 관리가 재임해 있는 동안에는 논밭을 사서 땅을 넓히는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 ■